

COMPANY UPDATE

2026. 6. 15.

EV/모빌리티팀

임은영 팀장
esther.yim@samsung.com

김현지 Research Associate
hyunzi.kim@samsung.com

종목 정보

Not Rated

목표주가	n/a
현재주가	132,600원
시가총액	1.4조원
주식수 (유동주식 비중)	10,395,000주 (71.8%)
52주 최저/최고	23,750원/132,600원
60일-평균거래대금	309.4억원

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삼화콘덴서 (%)	108.5	329.1	447.9
Kospi 지수 대비 (%pts)	67.8	111.2	80.1

컨센서스

커버 증권사 수	1
목표주가	51,000
추천 점수	4.0

※ 추천점수: 4 이상 → BUY, 3 → HOLD, 2 이하 → SELL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삼화콘덴서 (001820)

커패시터가 로봇 열 관리에 핵심인 이유

- 삼화콘덴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MLCC와 20% 비중인 DC-Link는 로봇의 열 관리에 필수 부품.
- 액추에이터가 순간적인 힘이 필요할 때 커패시터가 중간에서 순간 전력을 공급. 전체 시스템의 전기적 발열량을 억제.
- AI 시대에 커패시터의 역할이 지속 확대되면서 장기 호황 사이클 진입.

WHAT'S THE STORY?

Physical AI 시대까지 지속될 실적 성장: 데이터센터의 전력 인프라, 전기차에 이어, 로봇에도 커패시터가 필수.

- Capacitor의 기능, 1)전원 안정화:** CPU, GPU, 인버터, 산업용 장비 등이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요구할 때, Capacitor가 바로 옆에서 순간적으로 전류를 보충. **2) 노이즈 제거:** 전기 신호에 섞인 노이즈를 필터링. 고주파 노이즈는 Capacitor를 통해 그라운드로 흘러보내고 깨끗한 신호만 남음. **3) 교류와 직류 분리:**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는 막는 성질이 있음. 이에 따라 신호 처리 회로에서 원하는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필터로 사용.
- AI 시대에 커패시터 역할 확대:** 삼화콘덴서는 가전 제품용 DCC로 시작하여,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자동차용 DC Link Capacitor, 공장 및 발전소용 Film Capacitor까지 생산. 성장 동력은 MLCC와 DC-Link Capacitor로 총매출의 70% 비중.
- 커패시터, 로봇에서 열 관리 역할:** 로봇은 전기차와는 다르게 공냉식 열 관리가 기본. 액추에이터와 커패시터가 중요. 액추에이터가 주요 열원이고, 커패시터는 순간 출력을 조절하여, 전체 시스템 발열량 컨트롤. 로봇에는 스마트폰보다 40~50% 많은 양의 MLCC 탑재.

(다음 페이지에 계속)

SUMMARY FINANCIAL DATA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십억원)	263	281	295	294
영업이익 (십억원)	31	24	18	13
순이익 (십억원)	29	21	22	13
EPS (adj) (원)	2,803	2,002	2,100	1,206
EPS (adj) growth (%)	2.5	(28.6)	4.9	(42.6)
EBITDA margin (%)	18.9	16.1	12.3	10.3
ROE (%)	13.7	8.9	8.6	4.6
P/E (adj) (배)	10.7	19.0	13.1	24.3
P/B (배)	1.4	1.6	1.1	1.1
EV/EBITDA (배)	5.1	7.5	5.5	7.2
Dividend yield (%)	1.7	1.3	1.8	1.7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로봇에서 커패시터(Capacitor)업체의 역할은 전기적 발열을 원천 차단하는 전력 댐

- **피크 전류 완충:** 로봇이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배터리에서 관절로 전력이 직접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커패시터가 중간에서 순간 전력을 제공, 회로 전체의 전류 스파이크를 제어. 모터에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면 전선과 회로의 저항 때문에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 이 발열은 냉각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됨. 액추에이터에 순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줌으로써 시스템의 '전기적 발열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주는 방열의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
- **전력 소자 변경 영향으로 MLCC 적용 확대:** 액추에이터를 구동하는 모터 드라이버 IC를 GaN 전력 소자로 교체하면서, '인버터가 덜 뜨거워지고 → 커패시터도 소형화되고 → 관절 공간이 넓어지고 → 냉각 설계가 쉬워지는' 연쇄 효과로 연결. MLCC는 이 구조 전환의 수혜.
- **삼화콘덴서, 로봇 매출 기대:** 배터리팩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에 납품하는 DC-Link, 액추에이터에는 MLCC 납품 가능성. 삼화콘덴서는 2013년 DC-Link 개발로 현대차그룹의 Value Chain으로 편입. 삼화콘덴서의 MLCC 매출 중 30%는 전기차/전장 제품에 납품.

2분기부터 MLCC와 DC-Link가 이끄는 실적 성장 가능.

- **1분기, MLCC 매출 387억원(+24.2%YoY) 및 매출 비중 52%:**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 붐 지속으로, 삼화콘덴서의 MLCC 매출 고성장. 삼화콘덴서의 MLCC의 데이터센터 납품 비중은 매출액의 5% 미만. 그러나,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인프라와 인버터에 MLCC 납품.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서는 고압 변압기와 이를 둘러싼 무정전 전원 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전력 분배 장치(PDU: Power Distribution Unit), 서버랙 전원 공급(PSU: Power Supply Unit)이 필요. UPS, PDU, PSU에 전원 안정화, 전압 스파이크 흡수 등을 위해 MLCC가 필요하며, 삼화콘덴서는 이러한 전력 인프라에 MLCC를 공급.
- **2분기, Tier-1 업체의 가격 인상 효과:** 무라타, 삼성전기 등의 상위 MLCC업체가 수요 대비 공급 부족(수요가 공급 능력의 2배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을 예고. 2분기부터 5~10%의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낙수 효과로 삼화콘덴서의 MLCC 가격도 상승 예상.
- **하반기, 용인 공장 증설, 생산량은 40~50% 성장 가능:** 2025년에 국내 공장의 가동률은 85%이며, 현재는 풀가동 상태. 동사 MLCC의 최대 매출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진행된 2018년에 1,630억원으로 2025년 매출 대비 15% 차이. 2018년에 데이터센터의 전력기기용 MLCC 매출 증가에 힘입어 연결 매출액 2,740억원 및 영업이익 810억원으로 영업이익률 29.6% 기록. 주가도 109,500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

현재는 2015~2018년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Capex(1,300~1,500천억 달러) 대비 최소 5배 이상의 AI 데이터센터 Capex(2025~2026년: 7500천억 달러 ~1조 달러) 사이클이 진행 중. 삼화콘덴서는 2025년에 145억원 투자로 MLCC 공장 증설 및 생산성 향상 공사. 증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확장된 생산 능력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전기차 2nd Wave, DC-Link와 MLCC 매출 성장:** DC-Link는 배터리의 직류(DC)를 교류로 전환하여, 모터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심한 전압이 잡아주는 역할. 인버터 스위칭 과정에서 생기는 주기적인 전류 흔들림을 흡수. 순간적인 과전압이 인버터 반도체 소자를 파괴하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 하이브리드에는 DC-Link 1대, 전기차에는 DC-Link 2대 탑재. 삼화콘덴서는 2013년에 DC-Link를 개발하여, 현대차그룹과 글로벌 부품사를 통해 유럽 전기차 모델에 납품.

현대차/기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와 한국/유럽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 전기차도 Full-line up 구축. 유럽은 전기차 보조금 재개에 힘입어 +30%YoY 이상의 성장세 기록 중.

2026년 가이드스: 매출액 +5~10%YoY 및 MLCC 가동률 향상,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40% YoY 성장.

-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3천억원 돌파:** Fnguide 기준 컨센서스는 매출액 3,315억원(+2.6%YoY) 및 영업이익 210억원(+62.7%YoY)으로 영업이익률 6.33%. 컨센서스 EPS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P/E 65배.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붐 시기의 Valuation:** 2015년~2018년에 P/E 20~45배.
- **지배 구조 및 재무 구조:** 지분구조는 대주주(오영주 회장 외) 19.54%, 한국JCC 6.37%, 삼화전기 2.24%로 구성. 대주주를 중심으로 삼화콘덴서그룹의 계열사(콘덴서, 전기, 전자) 간 상호 출자 구조. 2025년 말 부채 비율은 21.7%로, 2018년 이후 순현금 재무 구조로 전환. 2025년 영업 현금흐름 260억원, Capex 170억원으로 현금흐름 내 안정적 투자 기조 유지. 사업보고서 기준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1.19%.
- **배당 성향:** 2025년 DPS 500원으로 배당 성향 41.5%.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커패시터업체의 로봇 열 관리 역할

부품	종류	열 관리 역할	공급망 관련성
메인 DC 버스	필름 커패시터 or 대용량 전해	회생 에너지 순간 흡수 → 배터리 과충전·과열 방지. 전압 스파이크 제거로 인버터 발열 감소	삼화콘덴서 DC-link. 내전압·내열 특성이 핵심 스펙
관절 드라이버 DC 링크	MLCC (세라믹)	GaN 고주파 스위칭 리플 전류 흡수. 인버터 효율 향상으로 시스템 발열 감소	삼성전기·TDK·무라타·삼화콘덴서 MLCC. GaN 전환으로 전해→세라믹 대체 트렌드
AI 컴퓨팅 보드	폴리머 탄탈·MLCC	CPU/GPU 순간 전류 공급. 전원 노이즈 억제로 열계산 오류 방지	저ESL·저ESR 고용량 MLCC

자료: 언론, 삼성증권

휴머노이드 로봇: MLCC 탑재량 추정

구분	구성	추정 (개) 근거
관절 액추에이터 드라이버	모터 드라이버 보드 50개 이상 (몸체 28 + 핸드·전완 25, 옵티머스 기준) × 보드당 30~80개	1,500~4,000 산업용 소형 서보 드라이브 보드 구성
AI 컴퓨팅 보드	FSD/Thor급 추론 보드, 저ESL·고용량 디캡 다수	500~1,500 AI 서버 보드 = 일반 서버 대비 최대 2.5배 (삼성전기)
센서·통신	카메라 모듈, IMU, 힘·토크 센서, 무선 모듈	100~300 -
전원·배터리	BMS, DC-DC, 전력분배 (DC-Link 필름 커패시터 1~2개 별도)	100~300 -
합계	-	약 3,000~6,000

자료: 언론, 삼성전기, 삼성증권 추정

디바이스 별 MLCC 탑재량

구분	스마트폰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MLCC 탑재량	약 1,000개	약 3,000~6,000개 (당사 추정)	1.8만~2만개
디바이스 무게	약 0.2kg	60~90kg	약 2,000kg
kg당 탑재 밀도	(IT 기기)	약 50~80개/kg	약 10개/kg
요구 사양 (믹스)	IT용 범용	전장급 고신뢰성 + 고용량·저ESL (ASP 높음)	전장급 고신뢰성

자료: 언론,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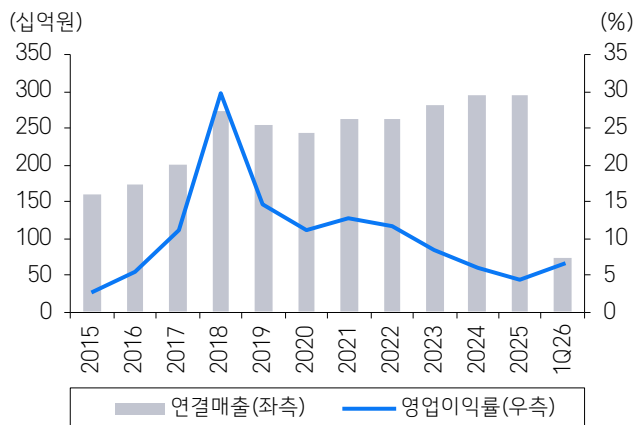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1분기 실적 요약

(백만원)	1Q25	비중	1Q26	비중	YoY증감(%,%p)
MLCC	31,221	43	38,771	53	24.2
FC	9,310	13	7,851	11	-15.7
DC-Link	14,446	20	14,335	20	-0.8
DCC	7,179	10	5,705	8	-20.5
기타	10,270	14	6,191	8	-39.7
매출	72,426	100	72,853	100	0.6
영업이익	4,814		4,696		-2.5
영업이익률(%)	6.6		6.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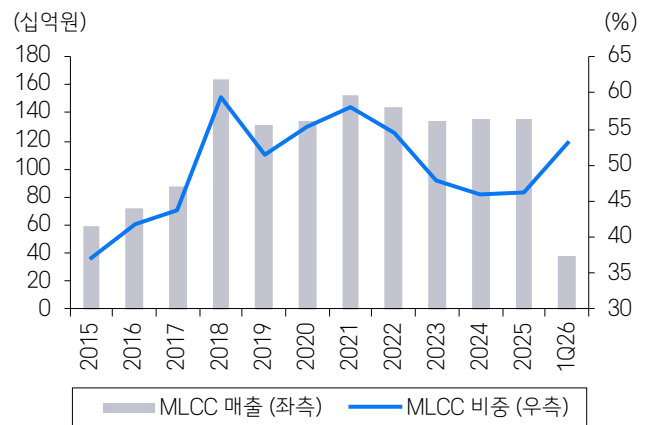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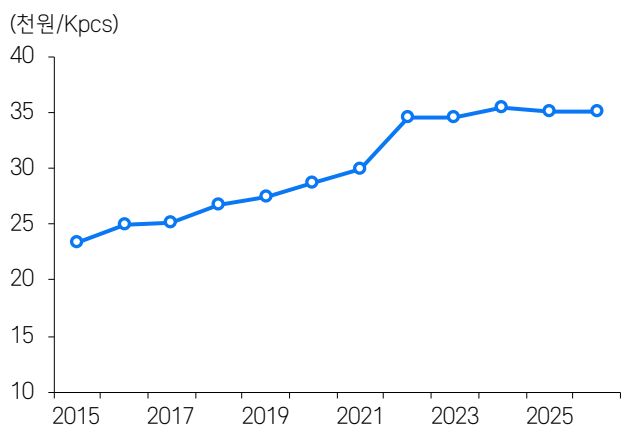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MLCC 매출 및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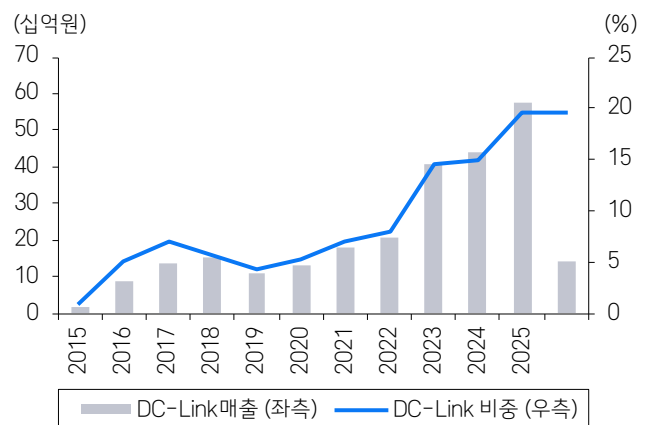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세라믹류 AS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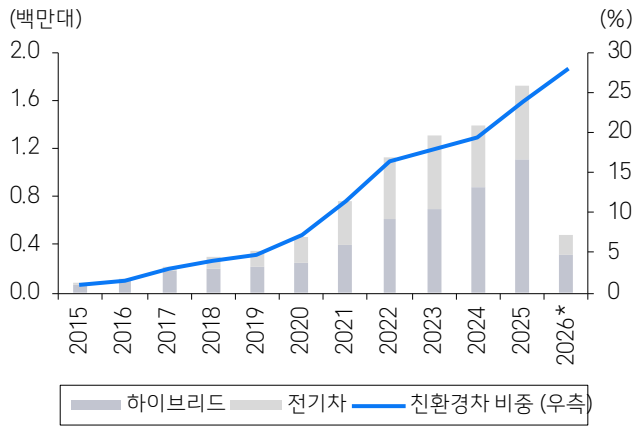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DC-Link 매출 및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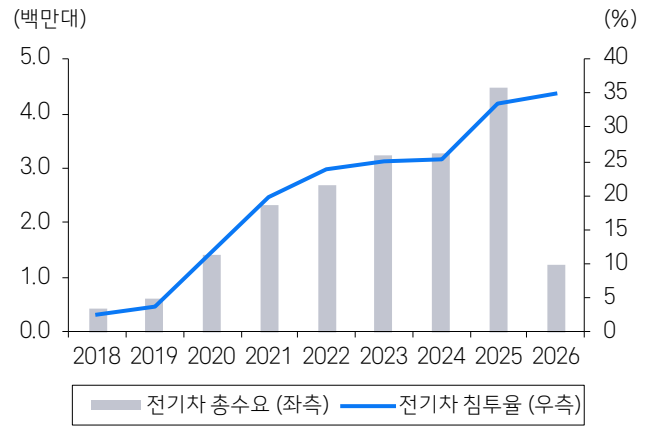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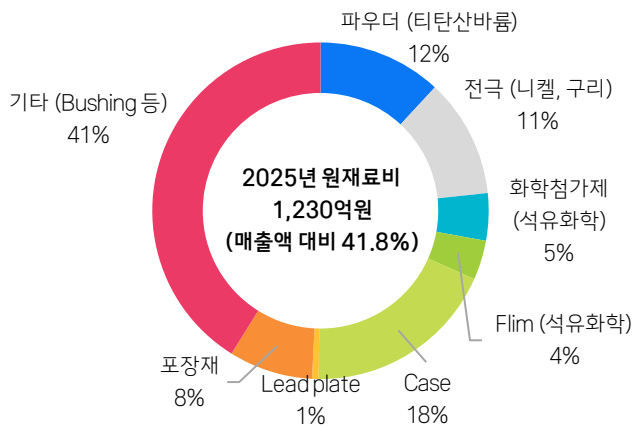
참고: *1Q26 누적
자료: 현대차, 기아,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수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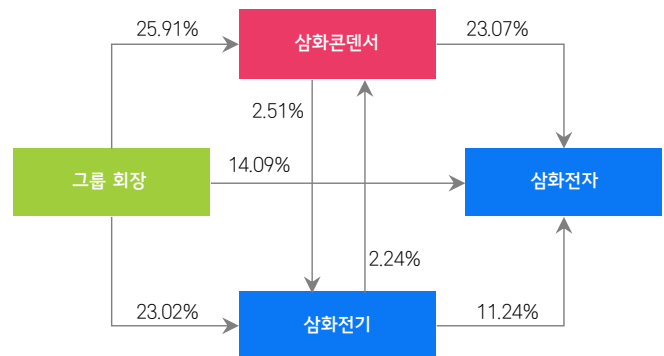
참고: 1Q26 누적
자료: ACEA, 삼성증권

삼화콘덴서: 원재료비 비중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삼화콘덴서그룹: 지배 구조



자료: 삼화콘덴서, 삼성증권

포괄손익계산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62	263	281	295	294
매출원가	203	206	229	248	250
매출총이익	59	58	52	47	44
(매출총이익률, %)	22.4	21.9	18.6	16.0	15.0
판매 및 일반관리비	26	27	28	29	31
영업이익	33	31	24	18	13
(영업이익률, %)	12.7	11.6	8.4	6.0	4.4
영업외손익	3	3	2	9	2
금융수익	4	9	7	12	8
금융비용	3	7	6	4	7
지분법손익	0	0	0	0	(0)
기타	2	0	1	1	1
세전이익	36	33	26	27	15
법인세	8	4	5	5	2
(법인세율, %)	21.5	11.9	19.1	18.2	13.4
계속사업이익	29	29	21	22	1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순이익	29	29	21	22	13
(순이익률, %)	10.9	11.1	7.5	7.5	4.3
지배주주순이익	28	29	21	22	13
비지배주주순이익	0	0	0	0	0
EBITDA	50	50	45	36	30
(EBITDA 이익률, %)	19.2	18.9	16.1	12.3	10.3
EPS (지배주주)	2,735	2,803	2,002	2,100	1,206
EPS (연결기준)	2,753	2,822	2,013	2,120	1,213
수정 EPS (원)*	2,735	2,803	2,002	2,100	1,206

재무상태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유동자산	148	162	177	206	214
현금 및 현금등가물	44	57	37	32	42
매출채권	51	54	61	70	67
재고자산	40	34	37	36	43
기타	12	17	42	69	62
비유동자산	121	125	131	122	126
투자자산	19	15	22	21	25
유형자산	94	98	100	94	96
무형자산	1	1	1	1	1
기타	8	12	8	7	4
자산총계	269	287	308	328	340
유동부채	53	54	55	54	53
매입채무	24	26	32	34	34
단기차입금	11	6	4	0	0
기타 유동부채	17	21	19	20	19
비유동부채	14	8	8	7	7
사채 및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 비유동부채	14	8	8	7	7
부채총계	66	62	63	61	61
지배주주지분	202	224	244	265	278
자본금	10	10	10	10	10
자본잉여금	5	5	5	5	7
이익잉여금	177	205	219	236	243
기타	10	4	10	14	17
비지배주주지분	1	1	2	2	2
자본총계	203	225	245	267	280
순부채	(37)	(58)	(62)	(87)	(90)

현금흐름표

12월 31일 기준 (십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36	53	34	39	26
당기순이익	29	29	21	22	13
현금유출입이없는 비용 및 수익	29	32	28	21	20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7	19	21	18	17
무형자산 상각비	0	0	0	0	0
기타	11	13	7	3	3
영업활동 자산부채 변동	(18)	(2)	(8)	(3)	(4)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	(23)	(29)	(48)	(36)	(13)
유형자산 증감	(19)	(24)	(25)	(11)	(17)
장단기금융자산의 증감	(4)	(3)	(23)	(25)	9
기타	(0)	(2)	(0)	0	(5)
재무활동에서의 현금흐름	(4)	(11)	(8)	(10)	(3)
차입금의 증가(감소)	(2)	(5)	(2)	(5)	(1)
자본금의 증가(감소)	0	0	0	0	3
배당금	(3)	(5)	(5)	(5)	(5)
기타	1	(1)	0	0	1
현금증감	8	13	(20)	(5)	11
기초현금	36	44	57	37	32
기말현금	44	57	37	32	42
Gross cash flow	57	61	49	43	33
Free cash flow	16	29	9	28	9

참고: *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완전 회석, 일회성 수익(비용) 제외
 *** P/E, P/B는 지배주주 기준

자료: 기업명,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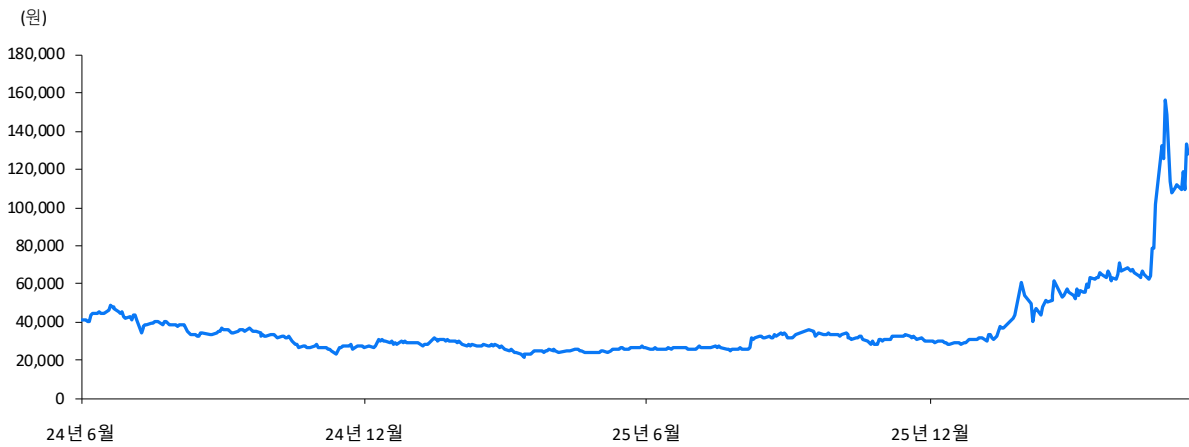
재무비율 및 주당지표

12월 31일 기준	2021	2022	2023	2024	2025
증감률 (%)					
매출액	8.1	0.5	6.6	5.2	(0.3)
영업이익	22.4	(8.0)	(22.4)	(24.7)	(27.9)
순이익	22.0	2.5	(28.7)	5.3	(42.8)
수정 EPS**	21.9	2.5	(28.6)	4.9	(42.6)
주당지표					
EPS (지배주주)	2,735	2,803	2,002	2,100	1,206
EPS (연결기준)	2,753	2,822	2,013	2,120	1,213
수정 EPS**	2,735	2,803	2,002	2,100	1,206
BPS	19,654	21,828	23,733	25,847	26,701
DPS (보통주)	500	500	500	500	500
Valuations (배)					
P/E***	22.0	10.7	19.0	13.1	24.3
P/B***	3.1	1.4	1.6	1.1	1.1
EV/EBITDA	11.7	5.1	7.5	5.5	7.2
비율 (%)					
ROE	15.1	13.7	8.9	8.6	4.6
ROA	11.4	10.5	7.0	6.9	3.8
ROIC	17.4	17.2	11.9	8.9	6.7
배당성향	18.0	17.6	24.7	23.5	41.5
배당수익률 (보통주)	0.8	1.7	1.3	1.8	1.7
순부채비율	(18.1)	(25.9)	(25.3)	(32.6)	(32.1)
이자보상배율 (배)	69.1	66.2	45.1	67.5	63.0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6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12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일 자	2026/6/15
투자의견	Not Rated
TP (원)	n/a
과리율 (평균)	
과리율 (최대/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3.31. 기준
매수(85.2%)·중립(14.8%)·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